

제7회 동주문학상에 안은숙 시인

광주일보·계간 '시산맥' 공동 주관

수상작 '정오에게 레이스 달아주기' 등 5편 해외작가상 김선호·특별상 문금숙 시인 신인상은 현은숙 시인... 11월 본상 시상식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7회 동주문학상에 안은숙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정오에게 레이스 달아주기' 등 5편이며 상금 1000만원.

운동주 시인의 '서시'에 담긴 시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동주문학상은 지난 2019년부터 운동주 시문학상에서 동주문학상으로 이름을 바꾸고 시집 공모로 응모를 받았다. 총 230여 명이 응모를 한 이번 공모에는 34명의 작품집이 예심을 통과해 6명의 후보 작품이 최종 본심에 올랐다.

심사를 맡은 장석주·이규리 시인과 유성호 평론가는 수상작품에 대해 "누군가를 향한 열망과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소멸의 징후 속에서 불린 아름다운 노래들"이라며 "서정과 실험의 양상이 잘 결합해 중요한 시적 성취를 이룰 것으로 기대됐다"고 평했다.

서울 출신의 안 시인은 건국대 대학원(교육학 석사)을 졸업했으며 2015년 '실천문학' 시 부문으로 등단했다. 2017년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 문학 분야 선정작가로 선정됐으며 제1회 시산맥시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지나간 월요일쯤의 날씨입니다'가 있다.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인 동주해외작가상(상금 300만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선호 시인에게 돌아갔다. 수상작은 '옹이' 등 5편. 김 시인은 서울대 대학원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13년 미주 '중앙일보' 시 부문에 당선됐다. 2019년 제23



지난 20일 LA코리안타운에서 열린 시상식 장면. 왼쪽부터 김선호 시인, 문금숙 시인, 현은숙 시인, 문정영 시산맥 대표. <시산맥 제공>

회 '해외동포문학상' 시 부문을 수상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시인으로 운동주 시인의 시 정신을 시로 구현하는 활동을 펼치는 시인에게 주어지는 동주해외작가특별상(상금 100만원)은 미국 LA에 거주하는 문금숙 시인의 '미완의 힘줄' 등 5편이 선정됐다.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한 문 시인은 '한국시'를 통해 등단했으며 재미시인협회 이사장 및 회장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나의 바퀴도 흔들렸다' 등을 펴냈으며 재미시인상, 만해학술원상을 수상했다.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의 활동무대를 넓혀주기

위해 제정된 제3회 동주해외시인상(100만원)은 현은숙 시인이 뽑혔다. 고려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현 시인은 1984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2016년 미주문학 신인상을 받았다.

한편 동주해외작가상, 특별상, 신인상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오후 4시30분) LA 코리안타운에서 열렸다. 문정영 시산맥 대표가 3명의 시인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또한 동주문학상 본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26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10-8894-872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해외작가상-김선호 시인

“되새기는 ‘부끄럼 없는 삶’ ‘운동주’ 이름에 책임감 느껴”

“언젠가 서울에 있는 운동주 문학관을 방문했을 때 그 분의 생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이 있다. 운동주 시인을 기리는 문학상이어서 서늘한 중압감과 책임감 등이 앞선다.”

동주해외작가상을 수상한 김선호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노래했던 시인의 정신을 이 시절에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시인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극에 달한 오늘날 인류는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창출된 재화가 분배되는 과정에서 욕망이 이성적인 판단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를 잘 쓰고 싶다는 로망, 그런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없다”며 “생각을 잘 하고 비어있는 말이나 낭비적인 언어를 삼가는 것이 기본 태도가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상은 한글, 모국어의 감각이 매우 약해진 시점에 다시 시 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등단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시는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한 정신적 영역이 아닐까 싶네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특별상-문금숙 시인

“시가 우리를 묶었고 위로 받고, 줄 수 있었다”

“함께 어울려 시를 쓰고 토론하며 끈끈한 정과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마음을 모아준 재미시인협회 선배 시인들이 있었기에 수상이 가능했다. 시가 우리를 묶어주었고 시가 있었기에 위로를 받고 위로를 줄 수 있었다.”

동주해외작가 특별상을 수상한 문금숙 시인은 “이민생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준, 늘 미안한 나의 시에게도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시인은 문학소녀 시절 운동주의 '서시'를 어릴 거든지 읽었다고 회상했다. 막연한 감상에 젖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시인을 좋아했고 뭔지도 잘 모르면서 존경하던 때를 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운동주가 자신의 방법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지켰듯 나도 문학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그의 정신을 좇으며 작품을 갈고 닦겠다”고 덧붙였다. 문 시인은 한동안 나태에 빠져 시공부를 게을리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수상으로 “정신이 반짝 든다”고 말했다.

“앞으로 회원들과 힘을 합쳐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뜻깊은 에너지를 길게 모으려 한다. 공부하는 자세를 단단히 일으키는 동력을 세워보려 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념·문학·삶’ 일치했던 시인의 작품 가치 여전”

동주문학상 수상 안은숙 시인

문예활동 학창시절 떠올리며 습작 끝 등단 삶 성찰하고 극복하려는 '별 헤는 밤' 애송 에세이·시집 구상... "초심 잃지 않겠다"

제7회 동주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안은숙 시인은 “운동주 시인의 지고지순한 인간미를 사랑한다”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진중함 삶의 태도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운동주 시인은 순수하고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라며 “시 속에 그의 인생관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동주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감은.

▲허리 부상으로 누워있는 날이 많았다. 심연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시를 썼다. “당신을 축하합니다”라는 전화에 감사의 성호를 그었다.

-운동주 시인의 작품 가운데 좋아하는 시는.

▲'별 헤는 밤'을 좋아한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작품은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고 회상하며 그리운 것들

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있다. 또한 현실에서 방황하는 부끄러운 자신을 성찰하고 삶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미래의 희망을 다짐하고 있다.

-운동주 시인의 시 정신은 어떤 방향으로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시대가 변해도 그의 작품이 여전히 가치가 있는 건 삶과 정신과 문학을 일치시켰기 때문이다. 지조 있는 정신세계와 부동의 신념으로 일관했던 운동주 시인의 시정신을 기억하며 현시대를 살아가는 문학인으로서 자신만의 시세계를 구축하되 끊임 없는 자기 성찰이 수행되어야 할 것 같다.

-시 창작 입문 계기와 이후 창작활동에 대해 말해 달라.

▲중·고교 시절에 문예활동을 했다. 코멘트를 달아주셨던 국어선생님으로 인해 글 쓰는 것이 좋았다. 그러나 오래 잊고 살다가 12년 전에 비로소 나를 돌아보며 나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문득 학창시절이 떠올라 펜을 들었고 오랜 습작 끝에 등단을 하게 됐다.

-향후 계획은.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모아 에세이를 쓸 생각이다. 사물 사진을 찍은 시와 함께 담아낼 시집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하고 싶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시 돌아가는 자연의 집

수 목 장

누구에게나 필수인 영원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1522-9341